

繼續教育의 活性化

金 天 旭
(延世大 機械工學科 教授)

繼續教育의 重要性은 現 經濟水準의 유지라는 消極的인 次元에서 벗어나 現在의 勞動力을 새로운 產業社會의 主役으로 기르려는 積極的인 次元에서 강조되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계속적인 生産性提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I. 緒 論

韓國은 지난 20년간의 4次에 걸친 經濟開發 5개年計劃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80年代初에 불어닥친 世界의 不況을 조심스럽게 打開하면서 福祉社會建設을 목표로 한 제2의 經濟跳躍을 이룩하기 위하여 총력을 傾注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經濟一邊倒의 정책 추진을 均等社會의 不在와 商業主義의 지나친 澎湃를 가져온다 하여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韓國의 經濟發展이 국민 모두의 矜持요 希望인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問題는 어떻게 高度의 經濟成長을 계속 이룩하면서 富를 均형있게 배분하는 福祉社會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韓國과 같이 自然資源이 貧弱한 나라가 經濟發展을 계속시키기 위하여서는 고도의 人力資源의 活用과 技術革新에 의한 優秀商品의 開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금 世界는 점차로 技術革命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또 다른 產業革命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영향은 第3의 물결로 일컬어지는 社會全般의 개혁을 수반하는 變革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근면하고 정적하다는 淸教徒의 生活만으로는 현대의 높은 生活水準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單純勞動만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여도 生産에의 附加價値가 너무 적어 도저히 1인당 國民生産 5,000달라 이상의 水準을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中東產油國의 建設現場에서 우리나라의 單純勞務者들이 그들 나라의 規制 때문에 아니라 經濟性的 觀點에서 더 이상 취업하기 어려운 事情을 볼 때 명백하다. 韓國의 1인당 國民生産이 2,000달라 정도에서 이런데, 하물며 福祉社會의 建設을 꿈꾸고 있는 1인당 5,000달라의 時代에서는 더욱 單純勞動이 설 곳은 찾기 어렵다. 따라서 韓國의 現 與件下에서 어떻게 교육받은 많은 人力을 더욱 쓸

모있게 만들며, 특히 나라의 死活이 걸려 있는 技術革命에 대처할 技術人力의 能力을 高度化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課題의 하나이다.

工業化 社會에서 繼續教育의 중요성은 이미 先進國들의 發達過程에서 명백해졌으며 韓國에서도 第5共和國의 憲法에서 平生教育의 重要性을 강조함으로써 이미 나타나 있다. 그러나 平生教育이라는 어휘에서 느끼듯, 사람의 一生을 통해서 공부하여야 한다는 뜻이 강조되어 個人의 價値를 추구할 뿐 政府의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뒷받침이 미흡한 實情이다. 繼續教育의 重要性은 現代社會의 變革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一定水準의 經濟的 優位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會社는 종업원에 대한 계속적인 教育이 필요하다는 現實에서 더욱 강조된다. 이와 같은 예는 70年代初의 繁榮의 先頭에 있던 西獨이 多數의 單純勞動者 또는 技術者를 外國으로부터 流入시키다가 80年代初의 不況期에 와서는 外國으로부터의 流入을 증지한 事實에서 명백히 볼 수 있다. 즉 현재 勤勞하고 있는 勞動人力의 계속적인 生産性 提高는 福祉社會建設의 基礎가 된다. 더우기 韓國과 같이 수많은 競爭國들의 挑戰과 先進國들의 制約을 물리치고 先進祖國을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繼續教育의 組織의 活性化는 必須不可缺하다. 따라서 繼續教育의 重要性은 現 經濟水準의 유지라는 消極的인 자세에서 벗어나 現在의 勞動人力을 새로운 產業社會의 主役으로 기르려는 積極的인 자세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繼續教育의 方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制度上으로는 두 가지로 大別할 수 있다. 첫째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실시하는 것처럼 繼續教育을 의무화하여 그 費用을 企業體와 政府에서 지원하는 制度이며, 두번째는 美國에서와 같이 個人의 稅制上 公제혜택을 줌으로써 자유롭게 繼續教育을 지원하는 方法이다. 前者는 프로그램 및 繼續教育體制가 確立되어 있으며 일정한 數의 技術人力이 교육받게 되어 國家의 으로 보아 多數의 高級技術人力을 양성할 수 있는 長點이 있는 반면, 프로그램 및 制度에 硬直性을 가져올 수 있는 短點을 가지고 있다. 後者의 경우에

는 一定한 數 및 一定額의 보장은 없으므로 計劃을 세움에 있어 여러 가지 不確實性을 가지고 있으나 自由競爭이므로 多樣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急變하는 技術世界에 신속히 적응하기 때문에 다양한 新技術의 開發을 促進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

韓國의 經濟與件과 傳統을 생각할 때 政府가 주도하는 制度的인 繼續教育의 活性化는 당분간 기대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현재의 教育與件과 國民의 教育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企業體나 技術人뿐 아니라 國民 모두가 스스로 向上하려는 노력을 極大化시키며, 政府에서는 이 노력을 積極的으로 뒷받침함으로써 繼續教育을 活性化시켜야 할 것이다.

II. 繼續教育의 現況

繼續教育을 받아야 할 對象은 各級 學校의 卒業生을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4年制 大學을 졸업하고 社會의 各 分野에서 일하고 있는 大學卒業生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繼續教育의 內容을 검토함에 있어 現 大學의 教育內容과 脆弱點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 大學의 教科課程은 實驗大學프로그램을 거쳐 확정된 새로운 教育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 새 시스템의 特徵 중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은 卒業 最小學點이 140學點이라는 것과 副專攻 制度가 이 學點內에서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거의 모든 學生이 單一專攻으로 졸업하는 現實을 생각할 때, 副專攻 制度는 大學에서의 專攻의 弱化을 가져오게 되었다. 더우기 卒業定員制에 따라 中途脫落이 在學中의 성적에 기초할 수밖에 없으므로 많은 學生들이 성적을 의식하여 專攻科目을 기피하는 現象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우려되는 일이다. 특히 職業과 관련이 있는 工學, 經營學, 法學 등에서는 卒業學點의 단일화로 인하여 專門教育을 실시할 여유가 없게 되어 부득이 卒業後에 社會에서의 繼續教育에 기대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1960年代 後半에 韓國의 企業界에 선봉처럼 일어난 經營大學院 붐은 韓國의 특수한 精神的 風土 속에서 많은 業績을 남겼다. 일부에서는

碩士學位의 濫發이라고 매우 懷疑의이었지만 이와 같은 熱風이 없었다면 1970年代의 驚異的인 經濟發展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商科나 法科大學 出身이 會社의 運營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던 時代에 새로운 經營學이라는 分野를 도입하여 短時日內에 넓게 擴散시킨 것은 무엇보다도 夜間에 碩士學位課程을 개설한 經營大學院의 功이다.

1964年 12월에 처음으로 經營大學院이 認可되기 시작하면서 全國의 거의 모든 綜合大學校에 經營大學院 畧을 일으켰으며 이후 行政大學院, 教育大學院, 產業大學院, 環境大學院이 활발히 設立되었다. 이와 같은 特殊大學院은 私立大學의 經營改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職場을 가진 많은 大學卒業者들에게 效果的인 繼續教育의 場을 마련하고 있다. 特殊大學院이야말로 한국적인 繼續教育의 한 樣式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特殊大學院이 效率的으로 運營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水準의 大學卒業生이 함께 하므로 講義의 水準은 一般大學院보다 낮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教育時間의 制限으로 充分한 教育을 실시하고 있지 못하다. 文教部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特殊大學院의 卒業學期를 5學期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特殊大學院도 大學卒業者가 많이 있는 모든 곳에 있는 것은 아니다. 特殊大學院의 대부분은 서울을 비롯하여 몇 개의 主要大都市에 있으며 工科大學 卒業者가 특히 많은 工業團地에는 거의 개설되고 있지 않다. 특히 數千의 大學卒業者가 일하고 있는 釜山, 蔚山, 麗川團地 및 玉浦에서도 이와 같은 기회를 얻을 수 없다.

한편, 特殊大學院에 대한 大學의 자세도 문제가 된다. 學問의 權威에만 집착하며 特殊大學院은 白眼視하는 분위기가 농후하며, 특히 一流大學校에서 심하다. 산골의 가난한 農家에서 大統領이 나오고 遺産도 받지 못한 가난한 靑年이 大財閥로 되는 세상에서 大學은 學問의 殿堂일 수만은 없다. 大學은 自意가 아니고 他意에 의하든간에 현재의 韓國社會와 같이 아픔을 나누며 새로운 希望을 창조하는 產室이다. 그러므로 大學은 學問의 創造뿐 아니라 社會에 대한 奉仕도

함께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觀點에서 特殊大學院의 役割을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지 韓國社會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매년 수없이 배출되는 女子大學 卒業生이다. 이 高等教育을 받은 수많은 女性들은 단순히 社會의 地位의 유지만을 위하여 존재하여도 좋은 것인가, 그들을 高級人力으로 利用할 수 있는 方案은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韓國의 產業社會는 이들 大學卒業의 女性들을 수용할 여유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여성이 어떻게 產業社會에 적응하고 스스로 專門職業人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오늘날 韓國에는 繼續教育의 체계가 없다. 政府에는 조직적인 支援을 위한 政策이 없으며 大學에서는 社會奉仕의 概念에서 이를 활성화시키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技術革命의 새로운 물결속에서 繼續教育에 대한 社會의 요구는 上位學位의 取得이나 社會的 地位向上을 노린 사치가 아니라 生存을 위한 鬭爭이다.

Ⅲ. 美國의 繼續教育

1. 短期肄習(workshop)

무더운 여름방학 한산한 大學의 캠퍼스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老紳士들이 가방을 들고 왕래하는 것을 보는 일은 美國의 大學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다. 그들은 대개 2~3일 정도의 短期肄習에 참여한 회사의 重役들이며 그 짧은 기간에 새로운 理論과 展望을 얻기 위하여 더위를 무릅쓰고 모이는 것이다.

美國의 대부분의 大學에서는 이와 같은 단기肄習을 組織的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繼續教育 專擔部를 두어 이를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短期肄習은 私立大學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州立大學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며 매우 활발하다.

또 다른 단기肄習의 主體는 각종 學會이다. 모든 學會에도 繼續教育 專擔部가 있으며 연중 계속하여 各種 專攻分野에서 실시하고 있다. 表 1에서는 學會 및 大學에서 開催하는 각종 短期肄習의 例를 보여 준다.

〈表 1〉 美國에서의 短期워크샵의 예

期 間	主 題	主 催
1978. 4. 22~4. 29	ASCE Continuing Education Course: No. 1 Cable-stayed Bridges No. 2 Chemical Grouting Managerial Skills through Self-directed Change No. 3 A new Dimension in Communications No. 4 Field Instrumentation for Soil & Rock Mechanics No. 5 Moving into Management: From Technician to Tactician No. 6 Professional Liability and Loss Prevention No. 7 Construction Engineering Optimization No. 8 Site Planning No. 9 Construction Claims: Analysis, Prevention, Defence No.10 Wastewater Facility Planning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美國 土木學會)
1980. 5. 9~5. 10	Dynamic Analysis of Ocean Structures	ASCE
1980. 5. 19~5. 23	Continuous Casting	University of Michigan
1980. 6. 9~6. 12	Micro-Engineering: The Engineering and Management of Large Scale Projects	MIT
1980. 6. 23~6. 27	Advances in Finite Element Methods in Structural Mechanics	MIT
1982. 8. 2~8. 13	Design Analysis of Engineering Experiments	University of Michigan
1982. 10. 4~10. 8	Fundamentals of Underwater Acoustics and Sonar System	University of Texas

이 表 1은 단순히 한 예에 지나지 않는다. 大學이 理論을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實際 엔지니어링과 관련이 있는 課題를 繼續教育프로그램으로 다루고 있는 融通성과 能力이 특기할 만하다. 日本에서는 大學에서 開催하는 단기워크샵이 그리 흔하지 않고 대부분의 워크샵이 專門學會를 통하여 실시됨을 볼 때 美國 大學의 특징을 알 수 있다.

2. 放送教育

大學院教育을 TV 네트워크를 통한 放送教育으로 실시한다는 것에 대하여 놀라는 분이 많을 줄 안다. 高等學校教育을 방송(경제적인 이유에서 문제가 있지만)으로 실시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하물며 大學도 아니고 大學院教育(주로 碩士課程)을 방송으로 실시하다니 제대로 되겠는가 하고 생각할 것이다. 筆者도 1969년에

Florida 大學校에서 TV로 放映되는 클래스에서 강의의 받은 적이 있지만, 유명한 Stanford 大學校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많은 示唆을 주고 있다.

SITN(Stanford Instructional Television Network)은 Stanford 大學校 工科大學에서 운영하는 放送教育으로서 샌프랜시스코灣 地域(San Francisco灣 일대의 都市들을 말하며 샌프랜시스코市, 오클랜드市, 싘호세市 등 人口密集地域과 버어클리市, 스탠포드市 등의 大學都市 및 실리콘벨리의 會社, 研究所들을 포함하고 있다)의 100여개의 會社와 研究所에 종사하는 수천명의 엔지니어와 管理人들에게 大學院教育을 실시하고 있다. One-way Video와 Two-way Audio 施設을 갖춘 이곳은 FCC에서 할당받은 4개의 채널을 통하여 하루에 12시간의 教育放送을 실

시하고 있다.

이 Network은 Stanford 大學校 工科大学과 繼續教育協會(ACE: Association for Continuing Education—샌프랜시스코시에 있는 大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經營學을 비롯하여 人文 및 社會科學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의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SITN에서는 工學, 電算科學, 數學, 應用物理學 및 統計學 등의 分野에서 1년에 150여 講座를 開設하고 있다. SITN은 放送의 可視範圍內에 있는 SITN 加入會社에 봉사할 뿐 아니라 可視範圍를 벗어난 먼 곳(東部に 있는 메사추세츠州의 Bell 研究所 뉴욕州의 IBM 社도 포함되어 있다)의 약 30여 會社에 종사하는 엔지니어에 대하여도 TVI(Tutored Video Instructional) 프로그램으로 教育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會員機關의 종사자들은 다음 세 가지 課程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즉, 正規大學院 課程(Honors Cooperative Program: HCP), 非正規大學院 課程(Non-Registered Option: NRO) 및 聽講課程(Audit Option)이다. 또한 會員機關의 종사자들은 관심 있는 研究分野에 대하여 무료로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다.

Stanford 大學校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會社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로 하여금 Part-time 制로 大學院의 學位를 취득할 수 있도록 1953년에 HCP 課程을 시작하였다. 1969년에 와서 Stanford 大學校는 TV에 의한 教育을 시작함으로써 HCP 課程의 學生들은 TV를 통하여 講義를 듣거나 學校의 클래스에서 직접 講義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HCP 學生은 大學에서의 성적, 추천서 및 GRE 점수에서 다른 入學申請者와 동일한 基準에서 경쟁하여 入學許可를 받는다. 그들은 Stanford 大學校의 다른 學生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으며 會社가 제공하는 財政的 支援下에 時間制로 등록할 수 있는 特典을 가지고 있다.

NRO는 Stanford 大學校의 大學院에 入學하지 못하여 學位課程을 밟을 수 없는 大學出身의 會員機關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教育制度이다. 이 課程은 正規課程에 등록하지 않고서도 종사원의 知識을 넓히며 발전시키고자 하는 會社의 要求에 부응하려는 制度로서 완전히 TV로 教育을

받는다.

IV. 繼續教育의 活性化 方案

1. 短期習삼

短期習삼은 對象의 制限이 엄격하지 않으며 단기이고(대개 1週日 이내) 최신의 각종 技術情報를 집중적으로 傳達할 수 있으므로 繼續教育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이를 活性化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方案이 필요하다.

(1) 大學에서의 短期習삼 活性化

短期習삼을 大學에서 外面하고서는 活性化시킬 수 없으며 반드시 大學의 積極적인 參與가 필요하다. 文敎部에서는 이를 위한 財政的 支援과 함께 行政的 支援도 병행시켜야 한다.

(2) 學會에서의 短期習삼의 活性化

現在 일부學會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講習會를 확대하여 대부분의 學會에서 年5回 이상씩 개최할 수 있도록 財政的 支援을 실시하여야 한다.

2. 特殊大學院의 強化와 育成

特殊大學院은 우리나라 특유의 教育熱에 바탕을 둔 自生的 教育機關으로서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繼續教育을 강화하는 데 큰 몫을 하게 할 수 있다.

첫째는, 教育의 質과 方向을 技術革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강화시키는 일이며, 이를 위하여 評價制度를 도입하여야 한다.

둘째는, 定員의 조정에 있어 비교적 자유스럽게 해당 大學院의 要求를 충족시켜야 한다.

3. 現地 大學院課程의 開設

지난 20년간 韓國의 工業化는 專門의 工業의 集中化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거대한 工業園地와 그곳에서 종사하는 大學出身社員의 集團化를 가져왔다. 이들 工業園地를 韓國 技術革新의 요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이곳의 大學出身社員에게 大學院教育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서울의 一流 特殊大學院의 現地 大學院課程의 開設을 강력히 추천한다. 또한 Stanford 大學校에서 실시하고 있는 放送大學院 教育도 앞으로 큰 참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